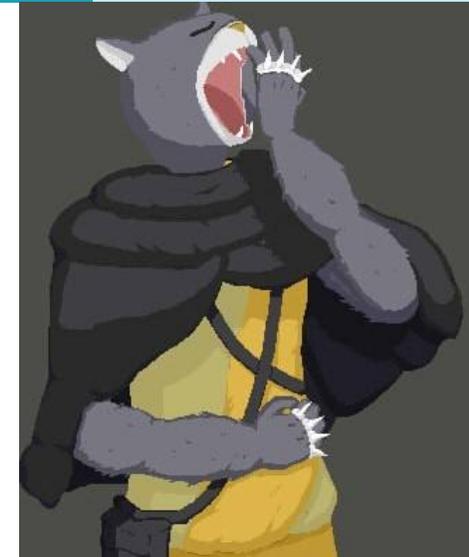


일본 초단기 유학

13학번 OB 박찬수

- 찰스 (CharleSE) | 박찬수, OB, 13학번
- 하라는 게임개발은 안 하고 ML(a.k.a 미신)하는 사람
- 10년째 UPnL에 와서 뭔가를 하는 늑은이



- 이력서
- 여권 / 비자
- 일본어 능력 증명서
- 졸업 증명서
- 유심
- ...
- 하지만 저는 음악이 하고 싶어요



幕張メッセ 国際展示場 9・10ホール (千葉県)
[地図を表示\(いつもNAVI\)](#)

ぴあにて購入

開場時間 2024/1/27(土) 17:00 開場

注意事項 5歳以下は保護者1名につき1名まで膝上無料。席が必要な場合はチケット必要。

チケットに関する注意事項 ■注意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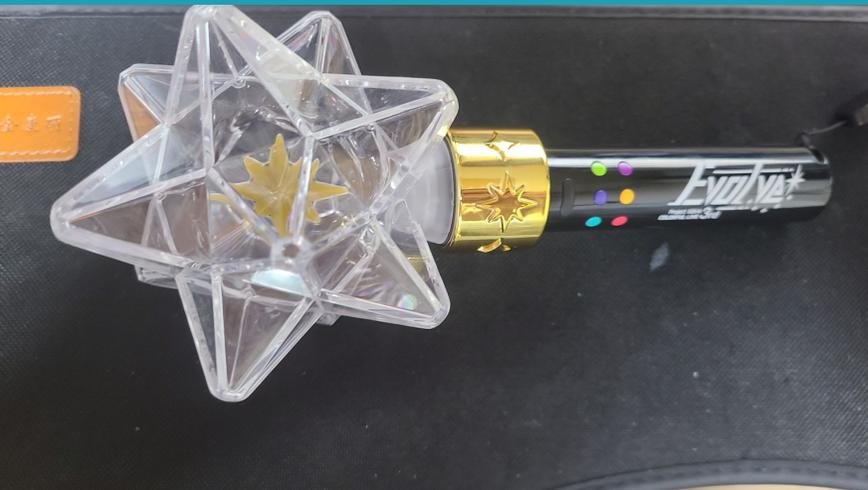
- ・公演の延期や中止の場合を除き、出演者の変更、及びキャンセルに伴うチケットの払い戻しはできませんので予めご了承ください。
- ・チケットの譲渡及び譲渡されたチケットでの入場は不可となります。
- ・転売...[続きを見る](#)

利用可能な引き取り方法 MOALA

チケット

S席 C47 0ヶ 3列1番
9,830円 (チケット券面金額9,500円+券面以外の金額330円)

S席 C47 0ヶ 3列2番
9,830円 (チケット券面金額9,500円+券面以外の金額330円)



프로세카 컬러풀 라이브

13학번 OB 박찬수

- 프로세카 컬러풀 라이브 3rd 낮/밤 공연 관람
- 아키하바라 횡행
- 도쿄 스카이트리 / 롯폰기 힐즈 / 야구장
- 먹부림 (중요)

가게 된 계기..

- 특히 저걸 현장에서 들으면
 - 일렉기타, 키보드, 드럼이 우리를 때려부순다
- 가야겠지?

-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라이브를 보러 일본에 가자!
- 하고서는 @cseteram, @Coffeetea 가 티켓을 샀더니 총 6장이 생김
 - 금요일 밤 (SS석 2매), 토요일/일요일 낮 (S석 각 2매)
 - 두명 다 5개의 후보들 중 상당히 많은 슬롯에 도전했으나 저만큼만 당첨
 - 같이 보기 위해 @Backspe와 @CharleSE (본인)이 탑승
- 하지만 티켓 샀던 사람들이 2번씩 봐야 하니까 나는 한 번밖에 못 보는데
 - 나도 티켓 추첨에 들어가야지
 - 금요일 밤 (SS석), 토요일 밤 (S석)에 도전 (낮 공연은 볼 수 있게 되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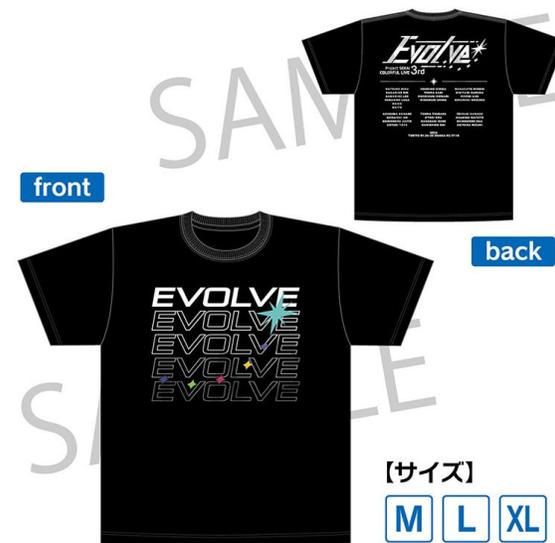
- 결과
 - Eom
 - 둘 다 당첨됨
 - 이러면 티켓이 넘치는데
 - 어떻게 처분하지? (뒷장에서 서술)
- 아무튼 부랴부랴 숙소랑 비행기를 예약했다
- 굿즈도 잔뜩 주문해둬م

プロジェクトセカイ COLORFUL LIVE 3rd - EVOLV 2024/1/27(土) 13:01
E -

2024/1/27(土) 18:00 開演
幕張メッセ 国際展示場 9・10ホール (千葉県)
チケットx1

プロジェクトセカイ COLORFUL LIVE 3rd - EVOLV 2024/1/26(金) 17:34
E -

2024/1/26(金) 18:00 開演
幕張メッセ 国際展示場 9・10ホール (千葉県)
チケットx1



- 티켓피아는 리셀을 지원한다
 - 취소표를 모아서 판매한 후 판매되면 판매한 사람에게 수수료 제외하고 환불
 - 대신 직접 티켓사에 환불할 수 없다
-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 일본 내의 은행 계좌로
 - ...
 -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티켓을 털어야 하는데



- 티켓피아는 분배를 지원한다
 - 친구에게 티켓의 링크를 보내서 수령
 - 티켓 분배의 대가로 금전 등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혀있다
 - => 그런 거 안 지킴
- 트위터를 통해 토요일 밤 티켓을 당일 점심에야 팔 수 있었다
 - 외국인이라 & 팔로잉/팔로워가 얼마 없어서 매칭이 굉장히 더덕짐
 - Paypay로 엔화 송금받아서 잘 썼다









- 미쳤다
- 캐릭터들이 라이브로 명곡들을 소화해주는데
- 밴드가 우리 보고 "부르고 죽어라" 명령하고 우리는 죽는다
 - 게임 내 음악들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음색이 얇은 악기들을 사용
 - 라이브에는 "발로 차는 드럼"이 있다
 - 퐁퐁퐁퐁
- 인기 좋은 곡들 위주로 선곡해서 자연스럽게 호응하게 됨
- 곡마다 스테이지와 캐릭터의 의상이 실시간으로 바뀐다 (NEW!)
 - 이전 라이브까지는 검정색 배경 + 기본 의상이어서 뭔가 비어있었다고 함
- 다시 한 번 라이브로 보고 싶다

아키하바라



-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키하바라의 유명세가 정말 많이 죽었다
- 그래도 오타쿠 성지로서의 명맥은 이어가는 중
 - 원신
 - 블루 아카이브
 - 메이드 카페
 - 등등의 광고들이 특대형으로 깔려있음



- 120Hz
- 프로세카 콜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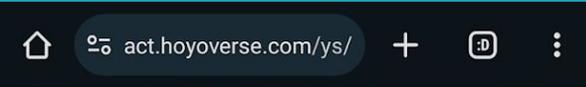
이외의 관광

도쿄 스카이트리 with 원신 (feat 플라네타리움)



- 밤의 전망대와 낮의 전망대는 또 다르다





原神 × TOKYO SKYTREE®

今日のおみくじ

—大吉—

風が吹く日は、何をやってもうまくいくだろう。
身近な人の気分は非常によくなり、争いごとが起こらなくなる。
食べたかったが、食べる機会がなかった美食を食べれるかもしれない。
仕事も旅行もうまくいく。
好機逸すべからず。

今日の縁起物: すくすく育つ「鳴草」。
鳴草は雷雨を予知する植物であることを、多くの人は知らない。
雷神様の寵愛に憧れ、稲妻列島でしか育つことができない。
鳴草を摘んだ時のビリビリとした感覚は、幸せの味に似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



2024/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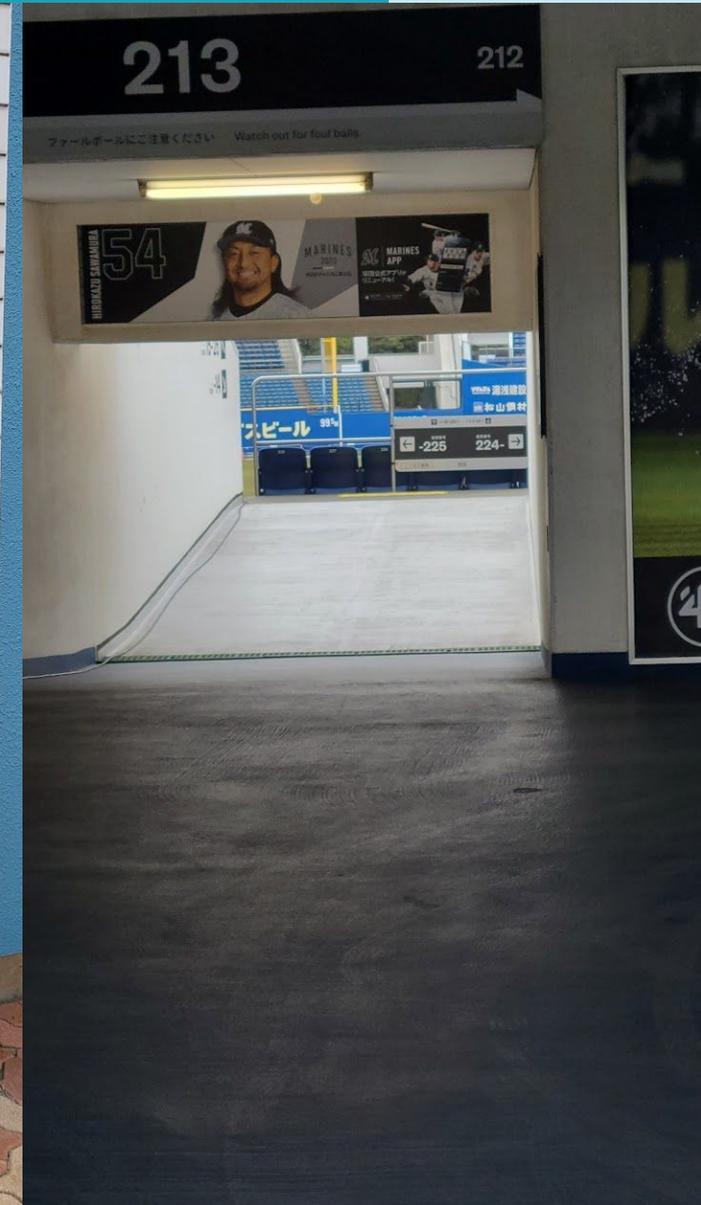


このおみくじをスクリーンショットでフレンドにシェアしましょう!





여기가 부산인가요? (마린 스타디움)



여기가 부산인가요? (마린 스타디움)



- 한창 공사중이었다
- 누가 롯데 아니랄까봐 식품 광고로 도배됨
- 이승엽의 우승 기념 손도장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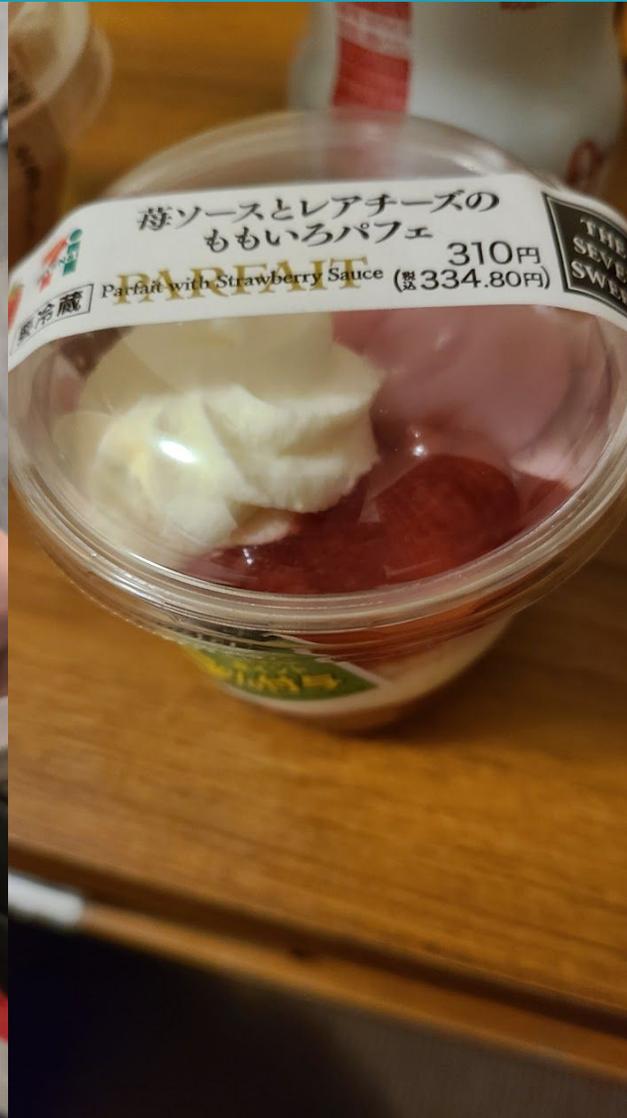


나 혼자만 리무진 버스 (케이세이 버스)



- 가이힌 마쿠하리 역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나 혼자** 갔다
- 기사 아저씨께 뭔가 승객이 저 혼자네요 라고 여쭙보니 "나도 이런 경험 처음이다" 하심
- 전세니까 오히려 좋았음
 - 나 안 탔으면 저 버스 0명인 채로 공항 갔을 거니까

목부림



- 니쿠지루 / 야끼소바빵 / 파르페 / 이거 갈아주는 스무디 기계가 세븐 일레븐 안에 있다

흔?한? 일본식 (토리키조쿠)



- 모든 메뉴가 360엔 (야키토리, 식사, 밥, 디저트, 음료 모두)

흔?한? 일본식 (치바땡)



- 체감상
2kg
- 1380엔
- 미쳤다
- 이 나라와
비교조차
안 됨



- 체감상
1.5kg
- 920엔
- 미쳤다



- 감사합니다